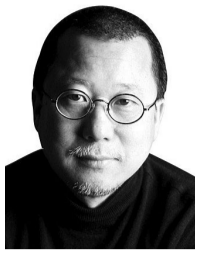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여름엔 바닷가나 숲속 휴양지에서 알베르 카뮈의 '결혼-여름', 막스 파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그늘에 대하여' 같은 책을 읽기에 좋다. 이 목록은 내가 젊은 날에 읽고 여름마다 되풀이해서 읽는 책이다. 법박하게 말하자면 독서란 일탈, 해방, 몽상, 그리고 무위를 통해 누리는 한 조각의 행복이다. 프랑수아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세 글자로 불리는 사람'에서 "책들은 고요해진 언어의 대양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것이다. 책들은 포말처럼 수궁친다"(74쪽)라고 쓴다. 도처에 흩어져 있는 독자들은 언어의 대양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온몸을 맡기고 몽상의 바다를 떠도는 걸 좋아한다.

한여름을 누리는 재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무 그늘 아래서 책 읽는 일이다. 내 경우는 그렇다. 나는 동물 사체에 맹금류들이 두 날개를 펼친 채 달려들어 맹렬하게 살을 찢고 삼키듯이 책을 읽는 재미가 있다. 조류가 제 발톱과 부리로 먹잇감을 물고 뜯으며 삼키는 일과 독서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 우리는 맹금류가 동물 사체를 뜯고 삼켜서 영양분

### 한여름의 책 읽기

을 취하듯이 책에서 정신의 지양분과 타인의 욕망과 살아갈의 기쁨을 얻는다.

잘 알다시피 책은 각종 문자로 이루어진다. 문자는 점도판, 파피루스, 양피지, 죽간, 종이 위에 제 형태를 드러낸다. 책은 각종 문자의 집합체이고, 문자는 의미를 기호화한 것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문자를 도약대 삼아 의미계로 수궁친다. 문맹인은 의미 없음에 방치된 채로 읍지의 세계에 떠돈다.

반면 의미의 빛으로 넘치는 책을 손에 쥐고 읽는 자는 어둠에서 나와 빛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며 나아가는 셈이다. 독서란 잠들지 않고 깨어서 홀로 책을 읽는 사람뿐이다. 독서자들이란 대개 빛을 흠치는 밤의 도둑이거나 항상 깨어 있다는 뜻에서 밤의 야경꾼들이다.

밤은 낮을 훑치고, 새는 곡식의 낱알을 훑친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지만 태양의 빛을 훑쳐 은빛 반사광으로 지상을 물들인다. 책 읽기는 그 본질에서 무언가를 훑치는 행위다.

책을 읽는 자들은 지식을 훑치고, 타인의 욕망을 훑치며, 일찍이 내가 누리지 못한 꿈과 동경을 훑친다. 훑친다는 것은 타인의 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 제 존재를 숨긴 채 무언가를 '먹고, 삼키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애써 책을 읽을 이유가 없다.

독서 욕망은 제 밖의 세계를 내 안으로 들인다는 점에서 도둑질이고 탐식이다. 책 읽기는 한가로운 소일거리, 고독한 취향,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일을 넘어서서 탈취이자 폭식이며, 무용한 기쁨의 도취다. "인간은 기

원과 본능의 영향권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문화, 포착, 함께-포착, 타인의 포식, 학습의 와중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선제(先天)하는 세계를 흡수해야만 한다"(파스칼 키냐르, 앞의 책, 61쪽).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의 정신과 어머니가 주는 삶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도 필요한 법이다. 독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는 한 수단이다. 독서란 우리 보다 앞서 존재하는 세계에서 필요한 그 무언가를 흡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독서를 고요한 물입의 행위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책이 굵주린 자의 앞에 놓인 먹잇감인 한에서 독서란 책을 난폭하게 움켜잡고 책의 정수를 흡혈하는 행위다. 독서에 몰입한 자의 손과 입은 금세 피로 물든다. 그들은 책을 찢고 삼킨 뒤에야 폭식의 충만감 속에서 천천히 멍을 일으켜 세운다.

활짝 펼친 책을 본 적이 있는가? 잘 살펴보면 그것은 두 날개를 펼친 새와 같다. 누군가 읽고 있는 책은 양 날개를 펼친 새와 같다. 누군가 읽고 있는 책은 양 날개를 펼친 채 공중을 나는 새다. 새들은 공중을 날다. 독서란 정신의 저공비행, 물입의 현기증 속에서 나는 일, 상상의 비행(飛行)이다.

책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 문면을 따라가라! 마치 새가 어디론가 데려가듯이 책도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그런 뜻에서 독서는 항해이고, 여행이며, 모험이다. 책은 먼저 우리를 독서의 고속 속도로 데려간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나 한 번은 살고 싶은 미지의 세계, 현실 저 너머 가상의 은신처로 데려간다!

### 종교칼럼

### 지도자의 덕목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민 1891-1943)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경륜으로 최초 법어를 설하시면서 수신(修身), 사람이 달라져야 되겠고, 가정이 달라져야 되겠고, 사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개인-가정-사회-국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법문으로 밝혀 주셨다. 또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만일 세상이 병든 줄을 모르거나 또 치료에 성의가 없다면 세상은 파멸의 사회가 된다며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셨다. 물론 세상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대종사께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이처럼 중요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먼저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고 가려면 지도자는 길을 알고, 방향이 있어야 이끌고 가는 것이다. 지도자가 지도받는 사람보다 못하다면 지도자를 그만 두어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야 된

다. 누구를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언제나 소속 구성원 보다 더 깊은 생각과 넓은 지혜와 큰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왜 대종사께서 이 지식을 말씀하셨느냐.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 지혜를 포함한 그런 말씀이 시켰지만, 어떤 명상에서 얻어준 초능력적인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 경영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거다. 지도자는 적어도 경영자이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도 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이요'라는 말씀에서도 그 성격을 볼 수가 있다.

옛날에 도학 공부의 시대를 떠나서 도리를 연구하고 원리를 연구하는 것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대종사께서는 시대를 따라서 학업에 종사하라고 하셨다. 이 현실의 상황,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 방향을 정해 줄 수 있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또 시대를 따라서 학업에 종사하는 지식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하자면 지도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하는 속에서도 변화의 주체를 확립할 줄 알고 또 변화의 주체를 세우며 능히 그 응용에 있어서는 변화를 수용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성요론에 밝혀 주신 응용의 형세를 보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공부를 늘 해야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다. 앞

으로 대응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항상 미리 생각하고 연마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적어도 역사에 과거를 참조할 줄 알고, 현재를 직시할 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전적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이다.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우리가 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지도자가 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은 그 지도자가 단체를 책임 있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우만 받고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는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놀지만 지도자에게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필 해야 되느냐.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해야 되는 데, 우리 세상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명색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노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노는 시간을 또는 시간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본다. 우리가 노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과 사회 지식과 상식을 넓혀 갈 것이요. 또한, 경전 법규 연습을 마친 사람은 늘 의도 성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또 경전 법규를 마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할 때 아침저녁으로 지식을 내 지혜로 전환시키기 위한 깊은 명상과 그리고 명상으로 얻어진 어떤 애감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지식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지식이 융합되는 통전적 지혜를 얻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다.

### 기고

### 광주시 민간 정원 활성화를 기원하며



오부영  
(사)한국민간정원협회 회장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 회장

순천은 세계 유일의 연안 습지를 가지고 있는 생태 도시다. 2013년 조성된 순천만 국가 정원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국제 정원 박람회(10월 31일까지)에는 60여개 국 56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 2015년 순천만 국가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순천시는 정원 문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약 28만 평 규모에 세계 정원, 테마 정원, 참여 정원 등 61개의 주요 시설을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정원 문화를 받아들여 순천의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원 문화의 확산은 가까이 순천만의 성공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한국 지리산의 소박한 모습을 정원으로 꾸민 황지해 작가가 수상하며 영국 왕의 대찬사를 받는 쾌거도 있었다. 사람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성공을 보면서 정원 문화가 국가에 크나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원이 아닌, 민간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 주관으로 2015

년 4개소로 시작한 민간 정원은 정원 문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 100개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5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었던 100개소 등록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산림청은 최근 국가 정원 2곳, 지방 정원 7곳, 민간 정원 103곳 등 총 112곳의 정원을 소개한 '대한민국 정원 여행 지도'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광주에 민간 정원 1호 '휴심정'이 탄생했다. 휴심정은 휴(休-쉬 휴), 심(心-마음 심), 정(淨-맑을 정/庭-뜰 정)으로 다양한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한 정원, 일상에 돌아와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에 맡겨 휴식을 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정원이라는 의미이다. 필자 역시 천안에서 민간 정원 1호인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을 가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출발에 박수를 보낸다.

휴심정은 9174㎡의 대지에 야외 정원 7550㎡ 규모로 다양한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 도심 내 산소 제초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성된 지 9년 만에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휴심정은 자연 경관 보전과 토지 개발의 공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021 아름다운 문화 도시 공간상'도 수상했다. 월 평균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광주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 중인데, 광주 시 1호 민간 정원 지정 소식으로 약 2개월간 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휴심정은 향후 광주 시, 광산 구,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휴심정 인근 유휴 자원(도전저수지 등)의 이용 모델을 제시하

는데 힘을 쏟는다고 한다. 또 탄소 중립과 식물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내 연구 기관 및 산림청과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 및 연구 개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얼마 전 광주시는 휴심정을 토대로 심장옥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지역에 민간 정원이 등록되면서 정원 문화에 관심을 두는 관의 모습은 긍정적이다. 민간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민간 정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휴심정을 기반으로 광주에도 많은 민간 정원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여러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정원 문화는 문화와 문명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산이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원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원 문화가 꽃피면 관광 문화 자원으로 두고두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는 데 케이팝(K-pop)이나 음식 뿐만이 아니라 정원 문화도 크게 한몫할 것이다. 훌륭한 정원이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광주에 머물기를 기대한다.

### 社說

### 재난 치달는 폭염, 취약 계층 보호 절실하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쪽방촌이나 달동네 등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은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광주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 5975명이다. 여기에 자살위 계층 4만 1810명까지 포함하면 취약 계층은 13만 명이 넘는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엿그제 들러본 이들의 여름 나기는 재난 현장을 방불케 했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이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틀지 못한 채 무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동구 지산동 김홍남(여·80) 씨의 집은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힐 만큼 무더웠다. 김 씨의 집은 단독 주택들이 밀집한 달동네에 위치해 있어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지만 선풍기만 틀어도 한 달 전기 요금에 3만 원 넘게 나와 에어컨 가동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전기료 중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비 27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 김 씨에게는 월 2만 원 수준의 전기료조차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여름은 이상 고온이 예년보다 심화되면서 취약 계층이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그제 광주에서는 야외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여성이 귀가 후 열 질환으로 숨지기도 했다.

노년 수준으로 치달는 폭염 피해 역시 노약자나 단골촌 등 취약 계층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광주시, 자치구는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운영, 위기가구 발굴 등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 취약 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 재유행...방역 조치 완화 신중하게

여름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며 재유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월 넷째 주(23~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 3906명으로, 직전 주 대비 23.7%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4844명,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9로 5주째 1 미상을 기록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 이상이면 확산을 의미한다.

광주 지역도 이 기간 신규 확진자는 1만 1043명으로, 지난주보다 695명 증가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6을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직전 주 25.4%에서 29.5%로 눈에 띄게 늘고, 사망자도 두 명이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와 거둬들인 변이 출현에 따른 먼

역력 약화로 인해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와 폭염을 피해 밀폐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 예방 수칙 준수 약화 등도 이유로 꼽힌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순에는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방역 조치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방역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또다시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서두름을 낮춰야 한다. 정부는 재유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고위험군 보호에 힘을 쏟고, 시민들은 다중 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율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 無等鼓

無等鼓
🛔

지난달 3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이번 시즌 트래블(UEFA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 우승)을 달성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의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의 친선 경기가 열렸다. 두 팀은 마치 챔스 결승에서 만난 듯 최정예 멤버들이 출전해 신경전까지 벌이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6만 4000여 명의 관중도 세계 최고 선수들의 양보 없는 대결을 뜨겁게 응원했다.

축구의 진수를 보여 준 명품 경기였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이 경기를 볼 수 없었다. TV 중계가 아닌 쿠팡플래이 시리츠에서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가입해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과 전북 현대의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축구 빅 이벤트를 TV로 볼 수 없어 아쉬워하는 이들도 많지만 OTT에는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 방송 편성에 제한이 없어 90분간의 축구 경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 훈련에서부터 경기 후 세리머니, 선수와 팬들의 교감까지를 담아낸다. 실제로 지난 30일 쿠팡플레이는 맨시티의 케빈 데 브리우너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과 슈퍼스타 엘링 홀란드 홀지어 선 팬에게 사인을 해 주고 유니폼 상의를 던져 주며 관중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여 줬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천문학적 연봉 제의를 뿌리치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간 것도 OTT와 관련이 있다. 언론들은 "미국의 음악, 맨스,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며 "메시의 미국행에는 '축구, 그 이상의 철학'이 반영됐다"고 말한다. 중계권을 가진 애플 TV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 축구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고, 메시는 수익을 배분받기로 했다.

이제 축구를 보기 위해 TV 수상기 앞으로 가는 시대는 끝났다. 손흥민·이강인·김민재 등 스타들의 플레이를 즐기려면 유료 채널과 OTT 등의 업체에 가입해야 한다. '축구 중계' 영국도 프리미어리그를 위성 방송 스포츠키스스포츠를 통해 중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유재만 편집담당1국장 jkyou@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程厚植</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 학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